나눔의집 정식이사 선출…정상화 '기대'

3월 10일, 관내서 정기이사회 개최

일운·응묵·제민·성화·희유 스님
이사 6명 만장일치…4명 사퇴표명
혜일 스님 "속히 정상화 이뤄지길"
3월 30일 이사회 열어 후속 논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MBC PD수첩의 왜곡보도 후 혼란을 거듭해 온 나눔의집이 2년에 만에 정식 이사를 선임했다. 선임된 정식이사는 일운, 응묵, 제민, 성화, 희유 스님이다. 정식이사들의 활동으로 그간 산적한 과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면 나눔의집의 정상화는 물론, 명예회복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눔의집은 3월 10일 관내 교육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경기도 행정처분 이행사항 △정관 개정의 건 △이사 사임 건 △이사 해임 건 △정식이사 선임 건 △2021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 등 11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회의는 이사들 간의 의견차로 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 정기이사회에 앞서 경기도가 선임한 이사 중 3명이 정식이사 선임안 상정을 막아달라며 수원지법에 신청한 의안상정 금치 가처분이 이사회 당일 오전 기각됐고, 이에 해당 안건을 우선 처리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하려 했으나 이찬진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수차례 거부하면서 대립각이 일었다.

게다가 정식이사 선임 건 논의 직전 이찬진 직무대행을 포함한 임시이사 4명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나면서 재적이사 11명 가운데 6명의 이사만 참석한 채 회의가 속행됐다.

상임이사 직무대행인 혜일 스님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식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판교노인복지관장 일운 스님, 前 금산사 복지원 이사 응묵 스님, 적석사 주지 제민 스님, 통도사 자비원 이사 성화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을 정식이사로 만장일치 선임했다.

혜일 스님은 "정식이사 선임으로 임시이사회는 이제 해체된다"며 "남아있는 정이사와 새로 선임된 정이사가 나눔의집을 원활하게 운영,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에게도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어려운 과정을 잘 겪어낸 만큼 속히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님들을 잘 모시길 바라며 이곳이 할머님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식이사 체제로 나눔의집 정상화에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나눔의집은 3월 30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소집, 2년간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나눔의집 강정숙, 박숙경, 이총희 임시이사 등 3명은 3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나눔의집을 상대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신청 취지는 3월 10일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정식이사 5인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것으로, 이들은 "법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종교적,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연고주의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3월 10일 오전, 가처분을 기각했고 이에 이사회는 원안대로 정식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자비 손길로 화마 휩쓴 상처 보듬는다

종정 진제 스님 필두로 릴레이성금

조계종복지재단, 현장 모니터링 후
생활가전 지원…긴급모금 시작도
아름다운동행 · 더프라미스도 모금

경북과 강원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기 위해 불교계 곳곳에서 자비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산불 발생 직후인 3월 6일, 긴급구호 선발조사단을 파견했으며 불교계 단체들이 잇따라 모금 캠페인에 돌입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시작으로 릴레이 성금 기탁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교구본사 및 사찰들이 잇따라 구호기금 모연에 동참,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각 지자체를 통해 전달하는 등 자비 실천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진제 스님은 3월 8일 "산불 화재 피해 주민과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이길 바란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3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5000만 원을 쾌척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큰절 주지를 맡으니 화재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종단차원에서 이번 산불 피해 복구와 터전을 잃은 주민들 지원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월드머시코리아 대표이사 현진 스님도 3월 11일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피해지원을 위한 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고 조계종총본산 조계사도 3월 15일,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아름다운동행을 중심으로 3월 8일부터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과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캠페인을 시작했다. 02)737-9595 또 이번 산불로 인해 사찰에서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를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명피해 방지는 물론 오랜 역사성을 가진 전통사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3월 6일 긴급구호 선발조사단을 파견하고 경북 · 강원지역 피해사항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피해가 큰 경북 울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우선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각 세대에 전기밥솥과 전자렌지 등 생활가전을 지원한다. 모연으로 마련된 생활가전 200개는 관련 군청 및 담당자들과 현지 상황을 논의 후 주택 전소 세대를 선정, 이재민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불발생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모금을 실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02)723-5101



영축총림 통도사는 3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5000만원을 쾌척했다.

지구촌공생회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생활터전 복구를 위해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구촌공생회 사무처장 덕림 스님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409-0303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는 산불 진압에 힘쓴 방재단 및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급식 지원에 나섰다. 더프라미스 산불긴급대응팀은 3월 7일 강원도 동해시 비천분교에 위치한 상황실을 방문, 300명에게 물과 도시락, 김밥 등 급식을 지원했다. 이어 동해시에 위치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방문, 대피해 있는 25세대 51명에게 티셔츠와 바지, 양말, 목욕 용품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키트를 전달했다. 3월 9일 더프라미스 재난구호 이사 묘장 스님이 직접 망상수련원에 방문해 이재민들을 만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다. 02)735-3119

이 밖에도 강원도에 산불피해가 있을 때마다 긴급구호 부스 등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쳤던 설악산 신흥사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호 기자

"정화 후에도 지속되는 선암사 분쟁 참담"

4대 주지 윤형하 씨, 조계종 공로패 수상

법적 소송 중인 선암사 관련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법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지적
前총무부장 금곡스님도 표창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금곡 스님(위)과 윤형하 씨(아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순천 선암사 소유권 문제로 법적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암사 4대 주지였던 윤형하 씨가 "정화 60년이 지나도 선암사를 두고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분쟁에 아픔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재판이 하루빨리 잘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윤형하 씨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선암사의 삼보정재를 보존하는 데 특별히 기여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확립한 공로에 감사하는 취지다. 윤형하 씨는 정화 이후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선암사 4대 주지 소임을 맡아, 당시 선암사의 등기부상 명의를 조계종 선암사로 등기완료한 당사자다.

이 자리에서 윤형하 씨는 "공로패를 받을 일도 아니"며 "다만 정화 이후 지금까지도 선암사와 관련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 슬프다"고 밝혔다. 이어 "선암사는 우리민족의 전통유산이자 불법이 계승되는 도량"이라며 "삼보정재가 순수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하는 목적으로 보존관리돼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고 참담해 했다. 때문에 "선암사 재판은 반드시 잘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법이 유효하다는 주장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족유산인 선암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원행 스님은 前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했다. 금곡 스님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여 년간 총무부장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금곡 스님은 지난해 4월 선암사 주지로 임명돼, 태고종과 소유권 분쟁을 담당하는 한편 조계종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송지희 기자

호명 스님, 한일불교교류協 이사장 취임

3월 4일 서면결의로 확정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사진〉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신임이사장에 취임했다.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3월 4일 서면결의로 대체된 제42차 정기총회에서 임기만료된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의 후임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의 이사장 취임이 공식확정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애초 2월 23일 42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이유로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이어 3월 4일 총원 47명 중 불참(미회신) 1명을 제외한 성원으로 호명 스님 이사장 취임의 건이 만장일치 가결됐다.

신임 이사장 호명 스님은 지난해 12월 17일에 개최되었던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추천된 바 있다. 호명 스님의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는 또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연기도 결정했다. 협의회는 애초 6월 13일~15일 일정으로 교류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른 일한불교교류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잠정 보류키로 했다. 개최 일정은 확산 추이에 따른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재차 논의할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 육 · 해 · 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육 · 해 · 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 대한불교조계종

NAVER Daum

www.buddhism.or.kr

-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 후원계좌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 문의전화 02) 6273-0108, 0109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이므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